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 I)

지 원 모 집 단 위	수험 번호	성 명

※ 유의 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한다.
2. 1번 문항은 답안지 앞면의 [문제 1]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2번 문항은 답안지 뒷면의 [문제 2]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답안 작성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르되, 분량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로 작성하여야 한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4.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5. 수정 시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6.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 [문제 1]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제시된 측정결과를 분석하시오. (501~600자)

※ [문제 2] :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 '사임'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01~1,100자)

[가]

언어의 부재가 곧 사고의 부재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언어의 부재는 침묵을 의미한다. 언어가 끊길 때 침묵만이 깃들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언어 작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침묵은 다만 소리가 나는 언어 행위의 부재를 뜻할 따름이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언어 행위는 수행될 수 있다. 말없이 생각을 할 때도 그러한 생각은 언어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가. 눈을 감고 내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고 하자. 이때 나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소리는 없지만 분명 말들의 연속일 것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합한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례가 비언어적인 수단에 의한 생각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일까? 오히려 말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나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명료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생각이 안개처럼 모호한 것이다. 따라서 생각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를 언어 없이 사고가 수행되는 사례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나]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언어상의 차이가 다른 모양의 사고유형이나 다른 모양의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말이 그 언어에 없다고 해서 전혀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일까? 해당 어휘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그 어휘가 지칭하는 대상이나 개념을 더 빨리 인식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하겠지만, 해당 어휘가 없다고 해서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은 있으되,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며, 더구나 생각이 오묘하고 신비한 수준에 이르면 언어는 이를 꼭진하게 나타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경험 세계를 상이하게 범주화한 우리의 언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주어진 단어에 의해서 지칭되는 개념에 대한 사고가 명확한 어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쉬운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의미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다]

다음은 비슷한 연령대(20세~25세)에 있는 동일 국적의 성인 남녀 네 사람(A, B, C, D)의 몇 가지 인지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도표의 수치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네 사람이 측정항목 별로 획득한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지능력 측정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측정 환경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측정 대상자들이 거의 같은 환경에서 측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B	C	D
언어구사력	90	88	15	30
수리능력	45	78	77	35
추리력	31	83	80	40
상상력	35	80	77	33
판단력	40	85	83	40

[라]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군.” 누군가 윈스턴 뒤에서 지켰었다.

그는 돌아섰다. 조사국에서 일하는 친구 사임이었다. ‘친구’란 말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친구란 건 없고 동무만 있다. 그러나 동무 사이에도 남보다 좀더 친한 동무가 있는 법이다. 그는 언어학자로, 신어(新語, Newspeak) 전문가였다. 현재 신어사전 제11판을 편집하는 큰 편집위원회의 일원이다. 그는 윈스턴보다 몸집이 작고 머리는 큰 데다 특 튀어나온 커다란 눈은 슬퍼 비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한데, 얘기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중략)

“사전은 어떻게 돼가나?” 윈스턴이 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럭저럭. 난 형용사를 맡았는데 무척 재미있어.” 사임이 말했다.

그는 신어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즉시 밝아졌다. 그는 스투 접시를 밀어놓더니 섬세하게 생긴 손으로 한 쪽은 빵덩이를, 다른 쪽은 치즈를 들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몸을 식탁 쪽으로 기울이고 말했다.

“제11판이 결정판이지. 지금 이 신어를 마지막으로 손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말을 쓰지 않아도 돼. 이 일이 다 끝나면 자네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지. 감히 말하네만 자네는 우리의 주된 업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우린 말을, 하루 수십, 수백 마디 어휘를 없애고 있네. 빼만 남도록 잘라내는 셈이지. 제11판에는 2050년 전에 없어질 말들은 하나도 수록하지 않네.”

그는 허기진 듯 빵덩이를 덩석 물고 두어 번 꿀꺽 삼키더니 다시 현학적인 정열로 말을 계속했다. 마르고 시커먼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에는 비웃는 표정이 없어지고 거의 꿈꾸는 듯 빛나기 시작했다.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물론 버려야 할 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명사도 수백 개는 되지. 없애는 건 동의어 뿐이 아니지. 반대어도 있어. 도대체 단어란 게 단순히 다른 말의 반대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낱말에는 그 자체 내에 반대어가 포함되어 있네.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아니, 오히려 그게 다른 말보다 더 정확한 반대어라 할 수 있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물론 이런 형태의 단어를 이미 쓰고는 있지만 신어사전 최종판에서는 이 말 한 마디만 남을 걸세. 결국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다만 여섯 개의 낱말로, 실제로는 단 하나의 낱말로 표현되는 거지.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걸 애초에 대형(Big Brother)의 아이디어야.”

그는 군더더기를 덧붙였다. 대형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윈스턴의 얼굴에는 흥미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사임은 윈스턴이 신어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으로 재빨리 알아차렸다.

“윈스턴, 자네는 신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사임은 맥이 빠져 말했다.

(중략)

사임은 흑빵을 한입 뜯어 씹고는 말을 계속했다.

“신어의 목적이 사고의 폭을 줄이는 것이란 걸 알고 있나? 결국 우리는 사상죄(思想罪)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만들거야. 왜냐하면 그걸 표현할 말이 없어질 테니까. 필요한 개념은 단 한 마디 말로 표현되며

그 말은 정확히 정의되어 다른 결뜻은 없어져 버리고 말지. 제11판에서 우리는 벌써 그 정도로 해 놓았어. 그러나 그 과정은 자네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거야. 한해 한해 어휘는 줄어들고 그럴수록 의식의 한계도 좁아지겠지. 물론 지금에도 사상죄에 대한 이유나 구실이 있을 수 있지. 그것은 단순히 자기훈련이나 현실통제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결국 그나마 필요없게 돼. 혁명은 언어가 완성될 때 완성돼. 신어는 영국사회주의고, 영국사회주의는 신어야.” 그는 은근히 만족한다는 듯 덧붙였다. “늦어도 2050년까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글쎄...” 윈스턴은 머뭇거리다 그만두었다.

“글쎄 노동자 외에는...” 하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으나 이 말이 비정통주의적인 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만둔 것이다. 그러나 사임은 윈스턴이 하려는 말을 알아챘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닐세.”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2050년까지는, 아마 그 전이 되겠지만, 구어(舊語, Oldspeak)에 대한 지식은 모두 사라질 걸세. 모든 과거의 문학도 없어지고 초서, 셰익스피어, 밀턴, 바이런, 이들은 다만 신어역(新語譯)으로만 남을거네. 그것도 다른 말로 바뀐다는 정도를 지나 원래의 의미와 반대 되는 것으로 변할거야. 당의 문학까지 변할거야. 슬로건까지 변할거야. 자유의 개념이 없어졌는데 ‘자유는 예속’이란 슬로건이 있을 수 있겠나? 모든 사상적 분위기도 변할걸세. 실상,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란 없어져 버릴걸세. 정통주의는 생각하는 것,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야. 무의식 바로 그거야.”

조만간 사임은 증발될 것이다. 윈스턴은 갑자기 이런 확신이 들었다. 그는 너무나 지적이다. 그는 너무 명백하게 관찰하고 너무 정확히 얘기한다. 당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의 얼굴에 그렇게 씩어 있다.

- 조지 오웰, 『1984년』

(건국대)2014년도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1>
- 출제의도, 문제해설,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

1. 출제의도

건국대학교의 2014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1> 문제의 키워드는 ‘언어와 사고’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이다. 이러한 키워드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언어로 사고하는가?’라는 것으로서, 이 질문은 거의 모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첫 번째 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에 속한다.

이러한 친숙성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사고의 질료인가의 문제는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는 다소 어려운 논제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며, 양자의 관계에 대한 확증된 이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논제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은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언어가 사고의 질료이기 때문에 사고는 언어로 진행되며, 따라서 언어가 배제된 사고는 불가능하다는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의 강한 주장과 언어가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모국어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언어상대주의(Linguistic relativism)의 약한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다른 한 가지 관점, 특히 인간 사고의 본질과 과정, 그리고 사고와 인간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인지심리학에서는 언어수행과 사고는 완전히 별개의 인지과정으로서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지 않으며, 사고의 언어(Language of thought)는 따로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언어결정론이나 언어상대주의 만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주류의 견해로 취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의 정립을 위해 결코 논외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입장임에 분명하며,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 논술고사의 <인문사회계 1>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적 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두 개의 지문([가], [나])을 제시하여 논술의 쟁점을 파악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쟁점에 관련된 일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경험적 조사 결과([다])를 분석해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설의 등장인물이 전개하는 주장([라])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 수험생의 사고력과 논술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비문학 텍스트의 핵심적 주장과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가?
-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과의 관련성을 읽어내는가?
-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여 거기에 담긴 사상이나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를 다각도로 해석하는가?
-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와 정량적 자료들을 하나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수립하는가?
-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유려한 언어표현의 형식으로 일관되게 기술하는가?